

국립전주박물관 광복 80주년·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년 기념 특별전

먹으로 새긴 신념, 글씨로 만나는 정신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 오늘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3부로 구성
호남서 첫 친필 유묵 선봬… 순국과 순교 주제로 지역 역사와 조명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안중근 의사의 친필 유묵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광복 80주년과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년을 맞아 12월 2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특별전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 大韓國人 安重根書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남긴 글씨를 중심으로 그의 치열한 삶과 의연한 순국, 그리고 깊이 있는 신앙을 살펴볼 수 있다.

안중근의사시승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2024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안중근 서서'의 지역상생 순회전으로,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안중근 의사의 친필 유묵을 선보이는 자리다. 특히 전주는 한

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권상연을 비롯해 많은 순교자들의 역사가 서린 곳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순국과 순교'라는 주제를 지역의 역사와 함께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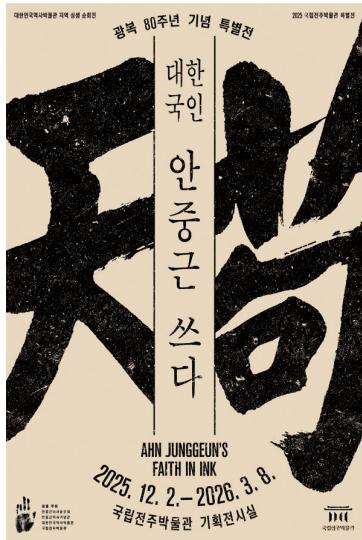
할 예정이다.

전시는 크게 △1부 '안중근의 삶' △2부 '안중근의 죽음' △3부 '안중근의 신앙'으로 구성, '순교의 땅, 전주와 전북 지역의 천주교' 공간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 △글씨로 읽는 안중근 의사의 정신, △안중근 의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신앙 △'순교의 땅' 전주와 전북 등 세 가지를 풀 수 있다.

먼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와 동양평화 사상, 그리고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신념을 담은 기록이다. 안중근 의사의 삶과 인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글씨에서 있는 그대로의 인간 안중근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이어, 안중근 의사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그의 생애를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출생과 가문부터 애국계몽운동과 항일의병활동, 단지동맹과 하얼빈의거, 재판과



순국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며 안중근 의사가 지난 역사적 의미를 전달한다. 그리고 강인한 신념과 믿음을 보여준 독실한 신앙으로서의 안중근 의사의 모습도 살핀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깊은 신앙심을 보여주는 3부의 대표 전시품 <경천 敬天>은 전시가 개막하는 12월 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단 6주만 전시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천당지복 원인자락 天堂之福 永遠之樂>으로 교체된다.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의 생애에서 중요한 죽이 됐던 천주교 신앙은 전북 지역의 순교 역사와 맞닿아 있다. 전주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 윤지충·권상연이 순교한 땅이다. 이들이 성지, 숲정이 성지, 전주목, 전동성당 등 밖에의 현장이 남아 있는 곳이다. 이번 전시는 안중근 의사의 '순국'과 전북의 '순교' 역사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는 안중근 의사가 남긴 글씨를 통해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 신앙인의 면모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라며 "특히 전주는 한국 천주교 순교의 성지이자 안중근 의사의 '순국과 순교'의 의미가 교차하는 장소인 만큼, 그의 신앙과 평화사상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완주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

10년 성과·미래 비전 발표

(재)완주문화재단은 지난달 29일 복합문화지구 누에 실마리 카페에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단이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새롭게 제시하는 미래 비전과 지역사회와 함께 문화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비전 선포식에는 지역 문화예술인, 재단 임직원, 군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완주문화재단이 걸어온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며 지난 10년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기념 영상 삼영 △10년 성과 발표 △미래 비전 발표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재단이 발표한 미래 비전 '문화를 넘어서 관광으로, 일상이 예술이고 도시가 축제인 완주'는 향후 완주문화재단의 정체 방향과 지역문화·관광 생태계를 이를 핵심 죽이 될 전망이다. 이번 비전에는 문화의 영역을 관광자원과 일상 속 예술 환경까지 확장해, 완주 전역을 일상 속에서 예술과 축제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재단은 지난 10년간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2015년 전북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설립된 완주문화재단은 호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시설 운영 등 문화 생태계 전반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완주문화재단 유희태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문화재단이 완주군민과 함께 해온 문화동행을 바탕으로, 10만 완주군민이 문화로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완주문화재단이 문화로 더욱 빛나는 15만 완주군민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전주 탄소산업, 예술창작으로 확장

2025 탄소예술기획전 '탄소의언어:전이의 순간' 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운영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 팔복예술공장은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A동 2층 전시실에서 2025년 탄소예술기획전 '탄소의 언어: 전이의 순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로 5회를 맞는 '탄소예술기획전'은 지역 전략 산업인 탄소섬유·탄소복합재를 예술 창작의 새로운 지층으로 확장해온 융복합 프로젝트다. 팔복예술공장은 지난 5년간 탄소 소재를 활용한 실험적 창작을 꾸준히 이어오며 51명의 작가가 발굴·지원, 200여 점의 작품 제작, 국내외 산업 박람회 8회 참여, 지역 기업 상징작품 5점 제작, 주한프랑스대사관 작품 2점 기증, 탄소예술작품 국내외 판매 20점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왔다.

올해 전시 주제인 '탄소의 언어: 전이의 순간'은 그간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탄소의 다중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다. 환경과 기후 등 산업적 의미에 머물던 탄소를 '창작의 매체'로 바라보며, 산업에서 예술로, 기술에서 각각으로 이동하는 전이(transition)의 과정을 작품에

담았다.

전시에는 이를, 이정란, 정유리, 조민지, 차건우, 최은우 등 총 6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참여 작가들은 탄소복합재의 단단함과 유연성, 빛을 머금는 표면성, 구조적 잠재력 등 소재가 가진 물성을 탐구하며 기존 작업 방식을 넘어서는 36점의 새로운 조형 언어를 선보인다.

한편 개막식은 3일 오후 4시 팔복예술공장 A동 1층 카페 씨니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작가 소개, 전시 기획 의도 발표, 전시장 리운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는 지난 5년간의 탄소예술 여정을 집약해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더 넓은 가능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탄소가 예술로 전환되는 순간의 감각을 시민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 관람료는 무료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 방문으로 전시 관람 가능하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장은성 기자

7일 이화경 교수와 함께하는
'감성소통 인문학 콘서트' 개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이화경 교수와 함께하는 감성소통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이화경 교수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 25명이 "내 삶을 건너온 시 한편"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간직해 온 애송시를 관객과 함께 나누며, 문학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시가 전하는 위로와 감성, 그리고 관객과 강연자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교류가 펼쳐질 예정이다.

주제 측은 "삶을 비추는 한 편의 시가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울림과 영감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문학을 통해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무형유산

'진안중평농악' 공개시연회

전라좌도진안중평굿보존회(회장 이승철)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부터 진안 전통문화 전수관에서 진안중평농악 공개시연회 '기운 솟는 가락, 기쁨 뿐는 소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보존회원과 지역주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며 중평농악의 기막과 판굿을 보존·계승하고 전통문화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공개시연회는 돌탑당산굿, 내빈소개, 회장 인사말 순으로 시작하였으며, 이어 본 행사인 마당판굿에서는 중평굿 앞마당 공연과 초청공연, 중평굿 뒷마당 등이 펼쳐져, 진안중평농악 특유의 구성과 정단을 생생하게 선보였다.

또한 공동체 화합을 상징하는 대동 한마당으로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전통의 궤적을 기록한 중평굿 사진전도 함께 진행했다.

진안중평농악은 미를 공동체의 노동, 기원, 놀이가 결합된 전통 농악으로, 여러 세대의 연희자들이 축적해온 기막과 흐름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이번 공개행사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중평농악의 전승 기반을 넓히고 진안 군민과 진인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안중평농악은 1992년 진안 선수면 중평마을에서 보존회를 결성해 현재 진안전통문화전수관에서 중평굿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상 웨리움 순창, 5일 견본주택 그랜드 오픈

순창 최초 공공택지 '순화지구' 고품격 브랜드 아파트 들어서다 | 총 264가구 규모 중대형으로 구성

전북 순창 최초 공공택지 '순화지구' 첫 브랜드 아파트인 '대상 웨리움 순창'이 오는 5일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순창 내에서는 2021년 순창남양휴튼(378가구) 이후 4년 만의 신축 분양이자, 지역 최초의 공공택지인 순화지구 내 민간 분양 아파트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순창 첫 공공택지 '순화지구'… 4년 만의 신축 분양

'대상 웨리움 순창'은 순창군 순화지구 2블록(순화리 2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지하 1층~지상 18층, 5개 동, 총 264가구 규모다. 단지는 전용면적 84㎡(209가구), 112㎡(55가구) 등의 중대형으로 구성됐다.

순화지구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며 순창지역 최초의 공공택지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던 곳이다. 순화지구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미래 프레지던' 278가구가 공급돼 100% 계약된바 있다.

전세대 4Bay 판상형 구조

채광·통풍·개방감 높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교통·교육·개발 호재까지

다용도실, 팬트리, 효율적인 주방 동선은 물론, 드레스룸 특화(유상옵션)를 통해 히노기 사우나까지 선택할 수 있어 순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여유와 품격을 더했다.

입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실내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탁구장, 당구장 등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과 취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알찬 공간이 마련돼 힐링 넘치는 '커뮤니티 라이프'를 제공한다.

▲교통·교육·개발 호재까지 갖췄다



대상 웨리움 순창 투시도

광역 이동, 접근성 등의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단순로를 통해 차량 이동하기 쉽고 광주대구고속도로 순창IC를 통해 남원, 광주까지 약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전북~광주~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가 추진 중에 있어 광역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교育환경도 눈에 띈다. 수도권 명문 대 진학 성과로 주목 받는 '옥천 인재숙'이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순창초, 순창북중, 새솔중, 순창고 등 학교도 가깝다.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고 기대를 모은다. 순창군이 전남 담양군과 손잡고 경마공원(엑스란파크) 유치에 나서고 있어 유치 시 지역 경제 활성화

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순창은 예로부터 부귀와 장수의 명당 입지로 명성이 높다. 대형종주학리학회 지종학 회장은 순화지구를 "용머리 헐저로 크게 이름을 펼칠 인물을 배출할 일지"라고 평가했다.

분양 관계자는 "순창 최초 공공택지에서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인 민족 수준 높은 상품성과 커뮤니티를 갖춘 단지를 만들겠다"며 "미래가치 선점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일 그랜드 오픈하는 '대상 웨리움 순창' 견본주택에서는 방문객들에게 푸짐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픈 3일간 매일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며, 명품기방 등 공개추첨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전 예약 방문 고객과, 내집마련신청서를 접수한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 견본주택은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회리 960에 위치한다.